

## 대학생의 도박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도박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 성 범  
(포항대학교)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중독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박중독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요인은 도박동기에 직접효과, 자기효능감 및 도박중독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보였다. 둘째, 가정생활만족도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에 직접효과, 도박중독에는 간접효과를 보였다. 셋째, 도박접근성은 도박동기와 자기조절에 직접효과, 자기효능감과 도박중독에는 간접효과를 보였다. 넷째, 도박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 도박중독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은 도박중독에 직접효과를 보였다.

주요용어: 도박중독, 도박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본 논문은 저자의 2012년 12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도박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 자기조절 상식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중 일부를 요약 및 수정·보완 한 것임.

■ 투고일: 2013.4.18    ■ 수정일: 2013.5.14    ■ 게재확정일: 2013.5.15

## I. 서론

인류는 역사적으로 삶에 대한 즐거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유희(遊戱)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유희들은 생성·발달·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과도한 몰입과 경쟁은 삶의 질을 손상시키는 소위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과거 중독이라 함은 알코올, 니코틴, 코카인 등의 약물과 같은 소수의 물질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물질뿐 아니라 도박, 성 및 쇼핑 등의 행동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김교헌, 2007)으로 사용되며, 최근 중독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도박중독이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외국에 비해 2~7배 높은 것으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특히 주목할 사항이 바로 20대의 도박중독 유병률이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2)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독예방치유센터를 방문한 20대의 비율이 2008년 10.5%에서 2011년 19.1%로 4년 사이 약 9%가량 증가했다. 이는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박병일 외, 2012)에서 조사대상자 중 20대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8.2%로 가장 높은 40대의 8.7% 다음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우리나라 20대의 비율 중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상담·치료가 필요한 대학생과 문제성 도박자 대학생 비율이 11%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가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이용한 국내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인 6.1%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동아닷컴, 2011; 영남일보, 2012).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청년실업의 문제 등은 대학생들이 인내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서적인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대학생들은 술, 게임, 도박 등의 일탈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박중독이 우리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에 대한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도박중독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도박중독의 원인으로 탐색된 요인들을 대상으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의 도박중독과 일반

도박중독자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접근성은 도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접근성, 도박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접근성, 도박동기,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접근성, 도박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접근성과 도박중독 사이에 도박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도박중독과 중독요인

#### 가. 도박중독의 개념

도박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간행동으로, 도박(gambling)의 단어는 스포츠나 놀이를 뜻하는 가멘(gaman), 가몬(gamon)에서 유래되었으며(Encyclopædia Britannica, 1977), 학자들은 도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도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오고 있다. 이들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우연이나 기술이 관여되는 게임이나 사건의 결과에 금전적 내기를 거는 것(Slade & McConville, 2003),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사건의 결과에 금전이나 다른 소유물을 거는 것(Blaszczynski et al., 1999) 등으로 도박의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분석하면 도박은 첫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돈 혹은 가치 있는 소유물을 잃거나 따는 사람이 있다는 것, 셋째, 최소 2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성사된다는 것과 넷째, 의식적인 자발적 행위라는 것이다(Smith & Wynne, 2002).

도박은 인간이 즐기는 놀이의 하나로서 도전과 경쟁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자극추구 욕구를 충족시켜 즐거움을 얻는 동시에 게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놀이에 비해 강력한 중독효과를 야기한다(김석준·강세현, 1996). 도박중독<sup>1)</sup>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단적 기준이 마련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1980년에야 뒤늦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II)에 포함되었다(이흥표, 2002b). DSM-III에 의하면 도박중독은 알코올중독의 의존상태와 같은 물질의존이나 중독개념을 도박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가 물질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하게 도박행동도 중독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도박중독은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Svetieva & Walker, 2008). 도박중독을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점이 의료적 관점이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4판(DSM-IV)의 정의에 따르면 도박중독은 개인적, 가족적 또는 직업적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적응적 행위로 도박에 대한 집착, 금단증상, 흥분추구와 내성, 통제시도 실패, 정서적/성격적 변화, 회피행동, 단기 추격매수(chasing), 거짓말, 불법행위, 생활 부적응, 재정파탄 등의 증상과 문제를 수반하는 중독성 질환이자 충동조절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이근후 외 역, 1995). 이에 반해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는 도박중독을 '도박에 소비하는 돈과 시간을 제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도박자 자신이나 타인 혹은 지역사회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Neal et al., 2005). 이는 도박중독의 측면이 병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일반적인 도박행동을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박중독은 개인의 병리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적인 맥락에서 도박중독을 바라봐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1) 도박중독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도박문제와 정책을 분석하고 제안할 때 사용되는 용어에는 제안자가 옹호하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 본 논문에서는 도박중독을 학술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박중독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용어들을 모두 포함함.

- ① 치유전문가는 정신병리와 부적응적 행동을 의미하는 “강박적 도박(compulsive gambling)”, “중독적 도박(addictive gambling)”, “장애 도박(disordered gambling)”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
- ② 정부는 “책임 도박(responsible gambling)”이란 용어를 사용함. 이 용어는 도박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이나 도박옹호를 내포하고 있거나 혹은 도박 이용자에게 도박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③ 정신건강 및 중독분야에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문제성 도박(problem gambling)”과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임. “문제성 도박”이란 용어는 특히 캐나다와 호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서 병적 도박자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병적 도박”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임(김교현·성한기, 2003).

## 나. 도박중독 요인

### 1) 정서적 요인

선행연구들 속에서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요인이 바로 우울과 불안이다.

우울은 병적 도박자의 주요 특징으로, 병적 도박자들은 세상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으며 만성적인 우울증상을 경험한다(Griffiths, 1995; Kennedy et al., 2010; Lee et al., 2011). 병적 도박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교성 도박자에 비해서 우울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울은 병적 도박의 치료 목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김영훈, 2005). 우울증상을 동반한 병적 도박자는 자신의 부정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박을 통한 흥분과 스틸을 추구하며, 적절한 대처행동과 대안제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쉽게 병적 도박에 몰입하기도 한다(김영훈, 2005).

또한 사람들은 불안(Anxiety)으로 인한 긴장상태가 발생되면, 쾌락의 원칙에 따라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이훈구, 2001) 개인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켜준 적이 있는 어떤 대상물의 심상을 창조하여 긴장을 감소시키고자 반사작용을 일으킨다(이훈구, 2001). 즉 도박중독은 인간이 불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Griffiths, 1995). 실제로 불안과 중독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불안이 심할수록 중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병적 도박자들이 도박을 자주 하는 사람과 도박을 가끔 하는 사람들보다 불안상태가 더 높았고(Sharpe et al., 1995), 병적 도박자들의 불안척도 점수는 사교적 도박자보다는 불안점수가 더 높은(김영훈, 2005) 등 비중독군에서 중독군으로 갈수록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훈구, 2001; Milosevic & Ledgerwood, 2010).

### 2) 가정생활요인

도박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인간의 일차적 환경인 가족차원의 고려와 접근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인간문제에서 가족 및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그 문제를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이는 도박 참여로 이끄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박중독자 가운데는 돈과 물질적 소유를 강조하는

가정에서 엄하지만 일관되지 못한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경우가 많으며,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정서적, 언어적, 육체적, 성적인 학대의 희생자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부모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을 경우, 이는 가정이 자녀에게 도박에 대한 모방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Politzer & Morrow, 1980; Ciarrocchi & Richardson, 1989; Lorenz et al., 1990; 김석준·강세현, 1996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 내의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가정생활만족도라 판단하여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생활만족도 변인을 설정하였다.

도박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갈등적 환경은 위험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만족도, 원활한 가족 간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등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손덕순·정선영, 2007; Griffiths et al., 2009; Blinne-Pike et al., 2010).

### 3) 도박접근성

흔히 도박중독의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도박에 대한 사회적 태도, 사회적 통제, 접근 가능성이 도박중독과 상관관계를 보인다. 사회적 태도는 도박에 대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여부를 의미하고, 사회적 통제는 도박에 대한 허용과 규제 정도를 의미하며, 접근 가능성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이흥표, 2002a; 이진국 외, 2008). 도박중독과 관련한 접근성에 대한 개념은 일정한 개념의 규정 없이 도박자금 조달용이성, 도박장 출입용이성, 도박동료 모집용이성, 심리적 용이성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이민규 외, 2003; 김교현 외, 2004; 연미영, 2006), 김영호(2010)의 연구에서는 도박의 접근성을 지리적 근접성과 심리적 접근성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도박에 대한 접근성의 개념들을 토대로 도박 장소 및 도구에 대한 접근성을 물리적 접근성으로, 도박 및 도박행위에 대한 허용 및 수용에 대한 개념을 심리적 접근성으로, 도박 행위를 함께 할 동료의 모집 및 동료에 대한 개념을 사람 접근성으로 개념 규정하고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박접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도박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도박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도박행위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의 수, 도박행위를 묵인하는 가족 및 친구들이 많을수록 도박중독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석준,

강세현, 1996; 연미영, 2006; 김영호, 2010; 장정연, 2011; Adams et al., 2007; Hurt et al., 2008; Pearce et al., 2008).

#### 4) 도박동기

동기는 신체적·심리적 활동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내적, 외적인 힘으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핍감을 느낄 때 동기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박이 도박자들에게 다양한 정서적,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며(이민규 외, 2007), 특정 활동에 대한 강한 애착의 발달은 잃은 돈을 만회(chasing losses: 도박의 경우)하기 위해 다시 그 활동을 행하게 하는 대상 활동에 대한 부가적인 동기를 초래한다(Liu et al., 2009).

도박동기와 도박중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각각의 결과들에 차이는 있지만 흥분동기, 회피동기, 금전동기, 유희동기, 사고동기가 도박문제의 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이홍표, 2002b; 김영훈, 2005; 김영호, 2010), 이들 연구에서 도박동기가 높을수록 도박중독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자기효능감

개인의 의지가 성취 행동에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참조적 사고(self-referent thought)가 중요하다.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자기참조적 사고란, 지식과 행동을 중재하는 동기의 요인으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느냐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행수준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기참조적 사고를 발전시킨 것이 행동을 일으키고 조절하는 자기효능감이 다(윤운성, 1998).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Bandura, 1977),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즉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도박중독과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에서는 도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자기효능감은 문제성 도박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고, 도박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도박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May et al., 2003).

## 6) 자기조절

목표 지향적이며 의도적 통제행위인 자기조절은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간섭자극을 통제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다. 자기조절의 기능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목표의 성취를 포함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한다. 즉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은 과제수행 수준이 높고 계획이나 문제해결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을 포함하는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 뛰어나며, 사회생활 속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이명진, 2011). 하지만 자기조절에 실패를 하면 개인적·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즉 도박, 알코올, 흡연, 약물, 게임, 쇼핑과 관련된 중독성 문제, 비만과 섭식장애, 분노폭발이나 범죄 혹은 폭력행동, 학업 및 과업과 관련된 문제성 수행능력 등의 행동은 모두 자기조절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김교현, 2006; Freeman & Muraven, 2010).

중독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 수준이 낮고, 자기조절이 낮은 사람일수록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형진, 2007; 한유진·최나야, 2009; Mishra et al., 2010).

## 3. 도박중독 요인들 간의 관계

도박중독은 하나의 요인이 단선적인 영향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여러 요인들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들 속에 나타난 도박중독의 요인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접근성과 도박동기와의 관계

‘움직인다(to move)’라는 의미를 지닌 동기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행동의 이유나 외부의 영향, 행동의 결과나 자체를 설명하는 경우 등에 쓰일 수 있다. 즉 인간은 목적 없는 행동은 유발되지 않으며 행동은 언제나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동기란 행동을 실행하게 하는 준비이며, 이러한 상태로 하여 목표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인간을 각성시키고 어떤 목표를 향해 행동을 이끌어 가는 내적인 지향세



력인 요구(need)와 욕구(want)이다(정용각, 1997).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박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서적,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이지만 사람들이 도박을 행하는 목적이나 도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보상은 개인의 특성과 상황, 도박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도박을 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기분이 고조되며 낙관적이 되고 흥분되는 느낌을 갖고(Jacobs, 1987), 우울감이나 권태감과 낮은 자존감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회피적 동기에서 도박을 하기도 하며(Blaszczynski & McConaghy, 1989; Raghunathan & Pham, 1999; 김영훈, 2005 재인용), 자기 고양감을 증진시켜 남들보다 우월하고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도박에 빠져들기도 한다(Jacobs, 1987; 김영훈, 2005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처한 정서적, 가족적, 사회적 상황적 자극은 도박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도박을 통한 각자의 목적과 보상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도박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나.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접근성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인간이 행동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한 인간의 능력을 일컫는(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권명순·조해련, 2012; 양연숙·권정임, 2012).

House(2001)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분노/적대감, 자기효능감/통제감의 부족, 부정적 정동, 무망감 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기효능감의 유용성을 확인하였고(엄태완, 2008),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불안의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국화·하은혜, 2009; 이상주, 2011).

가족요인과 관련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잘못 이루어져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발생된 문제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도박행위를 이끌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설정한 가족생활만족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진 결과들을 인용하고자 한다. 고등학생,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가족응집력,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김성재, 1996; 임성범, 2004; 정진선, 2009)들에서 가족응집력,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과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성목회자를 대상으로 가정생활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연구(고경애, 2010)에서도 가정생활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도박중독과 가족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유추한다면 가족생활이 안정적인 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 도박중독률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사행성 유발요인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과 도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도박허용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정선영, 2011)에서 도박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적 인식 및 도박허용도는 자기효능감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이며, 사회적 요인과 도박중독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접근성과 자기조절과의 관계

자기조절은 상황의 압력이나 생리적 과정 혹은 습관이나 학습 등에서 기인하는 반응들을 금지하거나 극복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자원을 의미한다. 즉 자기조절의 실패는 자기조절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주로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감정억제 노력을 많이 한 논쟁적 회의 이후 벌어진 저녁식사에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다이어트 규칙을 무너뜨리거나, 집에서 동생과 신경전을 벌이다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신경질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교현,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도박중독 요인으로 선정한 우울, 불안, 가정생활만족도와 도박에 대한 접근성 등은 자기조절에 따라 도박중독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진 많은 요인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도박중독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도박중독 요인과 도박중독 사이에서 자기조절이 매개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실례로, 우울, 불안, 사행성 유발요인과 도박중독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정선영, 2011)에서 도박중독 요인으로 입증된 요인들과 도박중독 사이에서 자기조절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도박동기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동기는 행동을 직접적이고, 강렬하고, 지속적으로 이끄는 내적, 외적인 힘으로 동기는 욕구, 본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핍감을 느낄 때 동기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정용각, 1997).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자기참조적 사고는 지각과 행위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느냐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수행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자기참고적 사고를 발전시킨 것이 행동을 일으키고 조절하는 자기효능감인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은 애매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윤운성, 1998).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도박중독에서의 도박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유추하면 인간 본연의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 상황 속에서의 여러 자극에 의해 도박동기가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된 도박동기에 따라 도박행위를 하게 된다. 이때 도박동기와 도박행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과 노력의 양, 지속의 정도, 그리고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Bandura, 1986).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개인의 결함에 집착하고 잠재적인 어려움을 상상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도박중독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따른 인터넷 게임몰입과 병리적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김보람, 2012) 게임동기는 게임효능감과 자기조절을 매개로 하여 병리적 게임사용과 게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마. 도박동기와 자기조절과의 관계

도박 행동에 가능한 동기를 우선순위 별로 측정한 Jacobs(1987)의 연구에 따르면, 병적 도박자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자극, 이완, 정서적 긴장으로부터의 탈출 순으로 평가하였다. 이흥표(2002b)는 도박을 행하는 동기로 사교동기, 유희동기, 회피동기, 흥분동기, 금전동기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중 사교동기와 유희동기는 친목과 생활의

활력이라는 정적 강화를 공유하며, 도박이 아닌 생활에 봉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짐으로써,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적 영향을 미쳐 오히려 건강하게 도박을 즐기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회피동기, 금전동기, 흥분동기는 부적응적인 도박행동을 지속하고 손실을 누적시키는 동기들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도박의 심각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이흥표, 2003). 즉 도박동기는 도박중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자기조절을 통해 조절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임몰입과 병리적 사용에 대한 연구(김보람, 2012)에서 자기조절은 게임동기와 병리적 게임사용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몰입과 중독에 관한 연구(김수경, 2010)에서도 자기조절은 게임 이용동기와 게임몰입 및 게임중독에 있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과의 관계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능력을 억제하며, 행동을 유도하고, 만족을 지연하며,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Mischel, 1973). 최근에는 Zeidner 외(2000)의 자기조절을 “체계(system)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고,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 의식적 노력이 포함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김보람, 2012).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자 특정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다(Owen, 1986).

자기조절과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자면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적 행위에 대한 자신감의 판단이라고 하면, 자기조절은 특정 상황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독에 있어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자기효능감 보다는 자기조절이 더 폭넓은 개념으로 평가된다.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임몰입과 병리적 사용에 대한 연구(김보람, 2012)에서 자기조절은 게임 자기효능감과 병리적 게임사용의 매개변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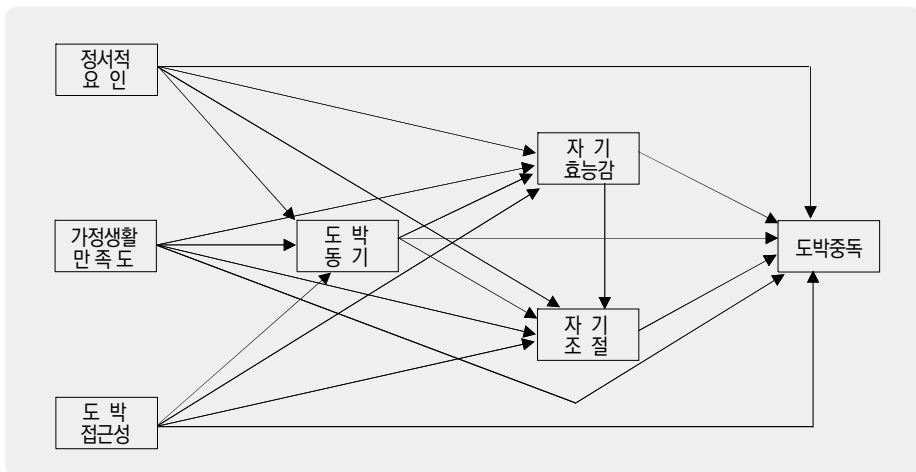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몰입과 중독에 관한 연구(김수경, 2010)에서도 자기조절은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게임몰입 및 게임중독에 있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도박중독에 있어서도 자기조절은 자기효능감과 도박중독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도박중독에 관한 문헌고찰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도박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대구·경북에 위치한 4년제 6개 대학과 2·3년제 7개 대학의 재학생 3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표본 설정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생 도박중독과 관련된 정확한 도박중독률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집수<sup>2)3)</sup>를 고려하여 표집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2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문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1차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를 토대로 2012년 6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회관에서 단순 무작위 표집 방식으로 각 학교당 20~25부씩 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300부를 배포하여 29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고정반응을 보이는 설문지 22부를 제외하여 총 268부를 활용하였다.

## 3. 조사도구

### 가.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선정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나이, 성별, 학년, 종교, 결혼 상태 등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추정방식은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이다. MLE에 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표본의 크기는 150~400이다.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입력 공분산행렬과 추정 공분산행렬 간의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여 적합도(fit)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400보다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 200이 단일기준치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이학식·임지훈, 2011, p. 19).

3)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표본의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측정변인의 수가 12개 이상이면 적절한 피험자 수는  $n = 1.5 \times \text{측정변인의 수} \times (\text{측정변인의 수} + 1)$  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Jöreskog & Sörbom, 1989).

## 나. 정서적 요인

일반적으로 중독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임상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 및 불안의 경향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90) 중 우울 13개 문항과 불안 10개 문항 척도를 문항결합을 통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우울 5문항, 불안 5문항을 추출하였고, 적합도 지수가  $\chi^2=65.225(df=34)$ ,  $p=.001$ , CFI=.982, TLI=.976, RMSEA=.059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정서적 요인의 Cronbach's  $\alpha=.931$ 로 나타났다.

## 다.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은아(2003)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지위 및 역할, 건강, 재정, 부부관계, 자녀(부모)와의 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 전반적인 가정생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가정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3문항, 가사노동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4문항,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3문항, 건강 및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 3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적합도 지수가  $\chi^2=88.388(df=59)$ ,  $p=.008$ , CFI=.985, TLI=.980, RMSEA=.043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고, 신뢰도 분석결과 가정생활만족도의 Cronbach's  $\alpha=.926$ 로 나타났다.

## 라. 도박접근성

사회에서 도박에 대한 도박행위를 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소, 도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장정연(2011)이 Focal Youth Gambling Risk Screen 중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안한 7문항, 김영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2문항, 그리고 연구자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1문항을 추가하여

10문항으로 재구성된 5점 Likert 척도와 도박의 심리적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석준과 강세현(1996)이 도박에 대한 허용도 및 사회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문항결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람 접근성 2문항, 물리적 접근성 2문항, 법적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의식 2문항, 도박 및 도박행위자에 대한 의식 2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적합도 지수가  $\chi^2=24.941(df=14)$ ,  $p=.035$ , CFI=.986, TLI=.972, RMSEA=.054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도박접근성의 Cronbach's alpha=.766으로 나타났다.

## 마. 도박동기

도박동기 척도는 이흥표(2002b)에 의해 개발된 5요인 도박동기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흥분동기, 사교동기, 회피동기, 금전동기, 유희동기의 5개의 하위요인 총 4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교동기 2문항, 금전동기 5문항, 회피동기 5문항, 흥분동기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적합도 지수가  $\chi^2=258.180(df=98)$ ,  $p=.000$ , CFI=.955, TLI=.944, RMSEA=.078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이며, 신뢰도 분석결과 도박동기의 Cronbach's alpha=.943으로 나타났다.

## 바.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May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GSEQ(Gambling Self-Efficacy Questionnaire) 척도를 김정연(2005)이 번안, 수정한 16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6개 문항이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chi^2=18.347(df=9)$ ,  $p=.031$ , CFI=.995, TLI=.992, RMSEA=.062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고,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963으로 나타났다.



## 사. 자기조절

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Kendall과 Wilcox(1979)가 개발한 총 33문항의 자기조절 척도(Welf-Control Scale: SCRS)에서 김보람(2012)이 20문항을 선별하여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관찰 5문항, 자기평가 4문항, 자기반응 2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적합도 지수가  $\chi^2=60.090(df=41)$ ,  $p=.027$ , CFI=.987, TLI=.982, RMSEA=.042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이고, 신뢰도 분석결과 자기조절에 대한 Cronbach's alpha=.906으로 나타났다.

## 아. 도박중독

도박중독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흥표(2002b)가 개발한 도박심각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발 당시 42문항으로 설계되었으나, 여러 번의 요인분석을 통해 생활손상, 법적 위기, 자제력 손상, 심리적 상해 및 부채 등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최종 29문항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 및 대인관계 문제 4문항, 금전적 문제 2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적합도 지수가  $\chi^2=19.673(df=8)$ ,  $p=.012$ , CFI=.993, TLI=.987, RMSEA=.074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고, 신뢰도 분석결과 도박중독의 Cronbach's alpha=.938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각 요인들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PASW 18.0 version을 사용하였고, AMOS 18.0 version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분석,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된 후 이론변수들 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여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Sobel test를 통해 다중매개모형에서의 개별적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 통계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나이 22.97세, 남자 156명(58.2%), 여자 112명(41.8%), 2학년 99명(36.9%), 1학년 85명(31.7%), 3·4학년이 각각 42명(15.7%)의 빈도를 보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146명(54.5%)이며, 미혼자가 263명(98.1%)이었다. 거주형태는 자가 또는 친척집 거주 학생이 150명(56.0%), 자취 또는 하숙 65명(24.3%), 50명(18.7%)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구분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나이	19~20세	73	27.3	종교	종교 없음	146	54.5
	21~25세	153	57.1		불교	53	19.8
	26~30세	33	12.3		천주교	17	6.3
	31~35세	6	2.2		기독교	51	19.0
	36세 이상	3	1.1		기타	1	.4
	전체	268	100.0		전체	268	100.0
성별	남자	156	58.2	결혼 상태	미혼	263	98.1
	여자	112	41.8		기혼	5	1.9
	전체	268	100.0		전체	268	100.0
학년	1학년	85	31.7	거주 형태	자가 또는 친척집	150	56.0
	2학년	99	36.9		기숙사	50	18.7
	3학년	42	15.7		자취 또는 하숙	65	24.2
	4학년	42	15.7		기타	3	1.1
	전체	268	100.0		전체	268	100.0

## 2. 주요 변수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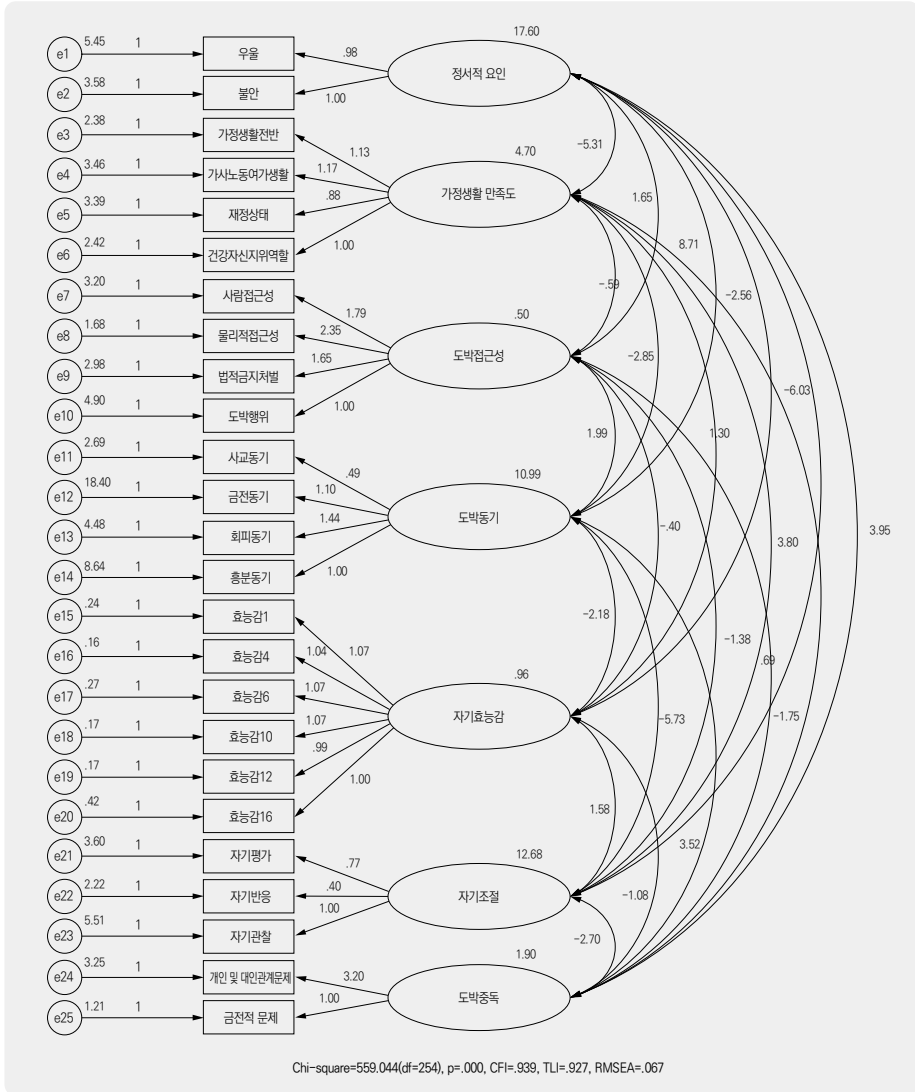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각 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적 요인의 평균은 2.12, 가정생활만족도 평균 3.30, 도박 접근성 평균 2.67, 도박동기 평균 2.39, 자기효능감 평균 4.07, 자기조절 평균 3.59, 도박중독 평균 1.77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이용하여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을 평가하였다. 정규성 평가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007~1.436, 첨도의 절대값이 .154~1.088로 변수들이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산팽창계수값이 1.393~2.283, 허용값이 .438~.718,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6~.79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행렬을 살펴보면 도박중독은 정서적 요인, 도박접근성, 도박동기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가정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자기조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 3. 연구모형의 분석

### 가.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의 검증을 위한 전 단계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값,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chi^2=559.044(df=254)$ ,  $p=.000$ 으로  $\chi^2$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CFI=.939, TLI=.927, RMSEA=.067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각 측정변수에서 잠재변수에 이르는 표준화된 추정치는 .305~.932로 1을 넘는 요인적재량이 없었으며, 분산추정치에서도 (-)가 나타나지 않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2. 측정모형 분석



## 나.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어져 측정모형을 포함한 잠재변수 간의 구조모형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559.044$  (df=254),  $p=.000$ , CFI=.939, TLI=.927, RMSEA=.067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구조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서적 요인( $\beta=.233$ ,  $p=.003$ ), 도박접근성( $\beta=.724$ ,  $p=.000$ )이 높을수록 도박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생활만족도( $\beta=.017$ ,  $p=.792$ )는 도박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생활만족도( $\beta=.359$ ,  $p=.000$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도박동기( $\beta=.467$ ,  $p=.000$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적 요인( $\beta=-.139$ ,  $p=.056$ ), 도박접근성( $\beta=.031$ ,  $p=.813$ )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생활만족도( $\beta=.341$ ,  $p=.000$ )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이 높게 나타났고, 도박접근성( $\beta=-.433$ ,  $p=.036$ )이 높을수록 자기조절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적 요인( $\beta=.052$ ,  $p=.595$ ), 도박동기( $\beta=-.002$ ,  $p=.990$ ), 자기효능감( $\beta=.028$ ,  $p=.779$ )은 자기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적 요인( $\beta=.139$ ,  $p=.032$ ), 도박동기( $\beta=.265$ ,  $p=.035$ )가 높을수록 도박중독은 높게 나타났고, 자기효능감( $\beta=-.388$ ,  $p=.000$ )이 높을수록 도박중독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생활만족도( $\beta=-.076$ ,  $p=.229$ ), 도박접근성( $\beta=.093$ ,  $p=.458$ ), 자기조절( $\beta=.100$ ,  $p=.091$ )은 도박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형적합도, 적합도 지수 등을 통해서 구조모형이 설정되었지만 초기모형의 분석 결과 적합도가 낮고 또한 경로계수들이 예상과 다르면 모형의 수정을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모형의 적합도가 높고 경로계수들이 예상대로 나타나더라도 모형의 수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모형이 현실을 설명하는 하나의 좋은 모형은 될 수 있겠지만 최적의 모형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이학식·임지훈, 201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최적의 모형을 추출하기 위해 모형 수정을 시도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의 경우 수정은 일부 측정변수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비해, 구조모형 분석의 경우 수정은 constructs 간에 경로를 추가로 설정하거나 비유적으로 나타난 경로를 제거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난 경로를 제거하면 적합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이학식·임지훈,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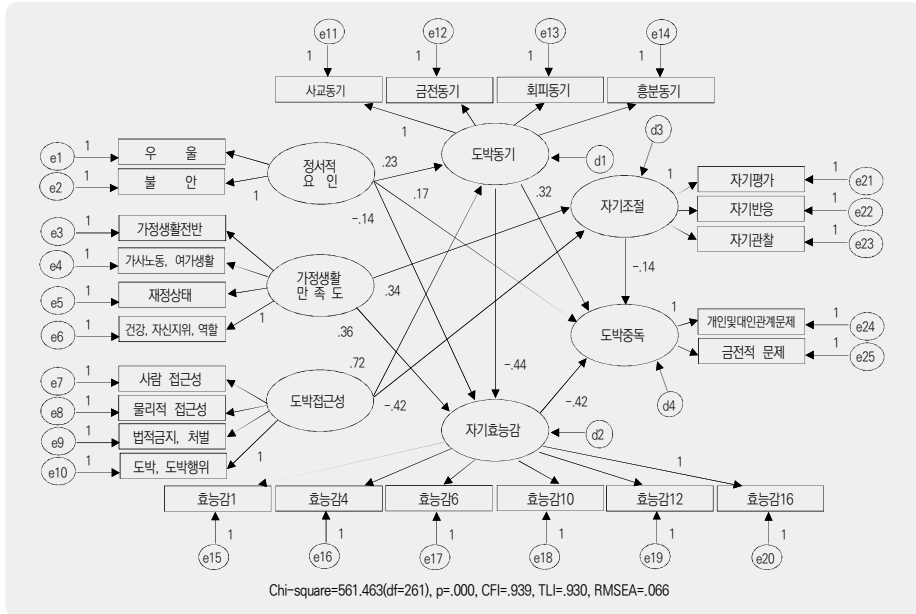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Wald 검정방식으로 구조모형을 수정하였다. Wald 검정은 같은 가설이라도 보다 단순한 모형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경우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형의 경로나 상관 중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점검하여 구조모형 분석에서 사용된 표준화 계수의 C.R 값을 토대로 경로모형을 삭제해 가는 방식으로 수정된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거의 같은 타당성을 보이면 AGFI가 높고 AIC가 낮은 쪽의 모형을 채택하면 된다(노형진, 2011).

표 2. 모형 수정 과정 및 부합지수 비교

모형	제거된 경로	$\chi^2$ 검정			GFI	AGFI	AIC	RMSEA
		$\chi^2$	df	p				
수정전 모형		607.608	279	.000	.838	.795	753.608	.067
수정1 모형	도박동기 → 자기조절	607.608	278	.000	.838	.796	751.608	.066
수정2 모형	자기효능감 → 자기조절	607.646	280	.000	.837	.796	749.646	.066
수정3 모형	도박접근성 → 자기효능감	607.714	281	.000	.837	.797	747.714	.066
수정4 모형	가정생활만족도 → 도박동기	607.788	282	.000	.837	.797	745.788	.066
수정5 모형	정서적 요인 → 자기조절	608.156	283	.000	.837	.798	744.156	.066
수정6 모형	도박접근성 → 도박중독	608.733	284	.000	.837	.799	742.733	.065
수정7 모형	가정생활만족도 → 도박중독	609.824	285	.000	.838	.800	741.824	.065

수정모형 분석을 통해 최종선택 된 구조모형의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561.463(df=261)$ ,  $p=.000$ , CFI=.939, TLI=.990, RMSEA=.066로 구조모형이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수정된 구조모형을 살펴보면 첫째, 정서적 요인( $\beta=.230$ ,  $p=.000$ ), 도박접근성( $\beta=.719$ ,  $p=.000$ )이 높을수록 도박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요인( $\beta=-.141$ ,  $p=.049$ ), 도박동기( $\beta=-.438$ ,  $p=.000$ )가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게 나타났고, 가정생활만족도( $\beta=.356$ ,  $p=.000$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정생활만족도( $\beta=.337$ ,  $p=.000$ )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은 높게 나타났고, 도박접근성( $\beta=-.417$ ,  $p=.000$ )이 낮을수록 자기조절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정서적 요인( $\beta=.170$ ,  $p=.004$ ), 도박동기( $\beta=.317$ ,  $p=.000$ )가 높을수록 도박중독은 높게 나타났고, 자기효능감( $\beta=-.417$ ,  $p=.000$ ), 자기조절( $\beta=-.141$ ,  $p=.006$ )이 높을수록 도박중독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수정된 최종모형 분석(표준화계수)



### 다. 효과분해 분석

수정된 최종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주요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효과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분해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효과분해 분석(표준화 계수)

		도박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도박중독
정서적 요인	총효과	.230	-.241	-	.343
	직접효과	.230	-.141	-	.170
	간접효과	-	-.101	-	.174
가정 생활 만족도	총효과	-	.356	.337	-.196
	직접효과	-	.356	.337	-
	간접효과	-	-	-	-.196

		도박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도박중독
도박 접근성	총효과	.719	-.315	-.417	.418
	직접효과	.719	-	-.417	-
	간접효과	-	-.315	-	.418
도박 동기	총효과	-	-.438	-	.500
	직접효과	-	-.438	-	.317
	간접효과	-	-	-	.183
자기 효능감	총효과	-	-	-	-.417
	직접효과	-	-	-	-.417
	간접효과	-	-	-	-
자기 조절	총효과	-	-	-	-.141
	직접효과	-	-	-	-.141
	간접효과	-	-	-	-

다음으로, 매개변수를 통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별 효과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경로별 효과분해 분석(표준화 계수)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서적 요인 → 도박동기 → 도박중독	.243	.170	.073
정서적 요인 → 도박동기 → 자기효능감 → 도박중독	.212	.170	.042
정서적 요인 → 자기효능감 → 도박중독	.229	.170	.059
가정생활만족도 → 자기조절 → 도박중독	-.048		-.048
가정생활만족도 → 자기효능감 → 도박중독	-.148		-.148
도박접근성 → 도박동기 → 자기효능감 → 도박중독	.131		.131
도박접근성 → 자기조절 → 도박중독	.059		.059



## 라.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수정된 최종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 접근성과 도박중독 사이에서 도박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박동기는 정서적 요인과 자기효능감 사이( $Z=-2.99, p=.002$ ), 정서적 요인과 도박중독 사이( $Z=2.75, p=.006$ ), 도박접근성과 자기효능감 사이( $Z=-3.49, p=.000$ ), 도박접근성과 도박중독 사이( $Z=3.13, p=.002$ )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와 도박중독 사이( $Z=-4.40, p=.000$ ), 도박동기와 도박중독 사이( $Z=4.64, p=.000$ )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정서적 요인과 도박중독 사이에서( $Z=1.87, p=.062$ )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기조절은 가정생활만족도와 도박중독 사이( $Z=-2.41, p=.016$ ), 도박접근성과 도박중독 사이( $Z=2.22, p=.026$ )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표 5. 매개효과 분석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	Z값	p	검증결과
정서적 요인 → 도박동기 → 자기효능감	-2.99	.002	채택
정서적 요인 → 도박동기 → 도박중독	2.75	.006	채택
정서적 요인 → 자기효능감 → 도박중독	1.87	.062	기각
가정생활만족도 → 자기효능감 → 도박중독	-4.40	.000	채택
가정생활만족도 → 자기조절 → 도박중독	-2.41	.016	채택
도박접근성 → 도박동기 → 자기효능감	-3.49	.000	채택
도박접근성 → 도박동기 → 도박중독	3.13	.002	채택
도박접근성 → 자기조절 → 도박중독	2.22	.026	채택
도박동기 → 자기효능감 → 도박중독	4.64	.000	채택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정서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도박접근성이 도박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과의 관계를 통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도박중독과 관련된 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은 도박동기, 도박중독에 정적 상관관계,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도박동기에 직접적인 영향, 자기효능감과 도박중독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고자 도박동기가 상승하지만(이흥표, 2002b; Liu et al., 2009) 자기효능감이 중독의 특성인 집착과 내성을 중재하면서 도박중독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우형진, 2007; 조민자, 2010).

둘째, 가정생활만족도는 자기효능감, 자기조절과 정적 상관관계, 도박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에 직접적인 영향, 도박중독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은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생활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조민자, 2010) 도박중독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류진아, 김광웅, 2004; May et al., 2003; Mishra et al., 2010).

셋째, 도박접근성은 도박동기, 도박중독과 정적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자기조절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도박동기, 자기조절에 직접적인 영향, 자기효능감, 도박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접근성이 용이할수록 도박동기가 상승하지만(이인혜, 2005; 김영호, 2010),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이 행동의 선택과 노력의 양, 지속의 정도, 성취에 영향을 줌으로써 도박중독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한유진·최나야, 2009; 조민자, 2010; May et al., 2003, Freeman & Muraven, 2010; Mishra et al., 2010).

넷째, 도박동기는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 도박중독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 도박중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본연의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 상황에서 여러 자극에 의해 도박동기가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된 도박동기에 따라 도박행위를

하게 되지만, 자기효능감이 사고와 행동을 중재하여 도박중독을 중재·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손경애 외, 2003; 김보람, 2012).

다섯째,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은 도박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도박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의 문제가 감소한다는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조민자, 2010; 이명진, 2011; Freeman & Muraven, 2010; Mishra et al., 2010)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도박중독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박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도박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토대로 도박중독의 주요 요인들의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각 요인들 간의 영향력과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도박중독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 및 개입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미 도박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정 대상자 집단을 선정하여 도박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대상자 집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원인 및 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 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 및 국외에서 도박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박중독에 대한 각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선정하고, 필요시 문항합치, 탐색적·회귀분석을 통해 척도를 재구성하고,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하위요인들에 대한 개념규정을 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있어 척도의 제공 및 연구진행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있어 증가하고 있는 도박중독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신건강 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박동기 및 도박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인 요인은 자아존중감에서 귀인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다

는 것은 정신건강이 나쁜 것이고 결국 신경증, 정신병이 된다는 것이다(Kernis et al., 199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주요 개입방법으로 다양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생, 일반인 및 도박중독자의 가족기능성 강화를 통한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탄력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제안한다. 탄력적 가족은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즉 모든 가족은 그 가족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이 위기를 경험 할 때 가족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며,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탄력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박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도박중독의 위험요인들을 조절하고 증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도박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도박중독의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재활 차원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다. 따라서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재활적 차원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처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현 시대의 경제 불황, 청년실업 등은 대학생들이 인내하기 힘든 경제적·심리적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영향은 일부 대학생의 술, 게임, 도박 등의 다양한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은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금전추구 욕구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습득 능력이 뛰어난 대학생들의 특성상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기술 발달과 보급의 결합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박을 접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신건강론과 같은 교양필수 과목의 개설, 학교 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중독과 관련된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도박중독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박접근성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사행산업 시설의 출입 횟수 및 베팅 금액의 제한, 영업시간의 단축, 사행산업 출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박 관련 이중 정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다양한 레저문화의 제공이라는 순기능보다 도박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모든 도박관련 사업장에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 시설의 연간 총 출입 횟수, 베팅 금액,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사행성 게임이 건전한 레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박 중독자의 경우 도박의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단도박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도박을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순간적인 결심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자발적 자기 배제 프로그램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발적 자기 배제 프로그램은 도박장 출입자가 도박장 출입제한을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로 국내의 도박시설 출입이 잦은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기관의 강제적인 상담프로그램보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과 달리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구·경북 지역의 일반 대학생들을 선정하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론을 일반화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부여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의 대상자이며, 286명이라는 표집수는 전체 국민들의 극히 일부분임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에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특정 대상에 한정된 연구가 아닌 지역사회 속에서 잠재하고 있는 대학생 및 일반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존의 도박중독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시 검증하고, 일반화시킴으로써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임성범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중독분야, 정신보건, 외상 후 스트레스이며, 현재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스마트 폰 중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lsb1112@hanmail.net)

## 참고문헌

---

- 고경애(2010). 여성목회자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역할몰입, 자기효능감, 심리적안녕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천안.
- 권명순, 조해련(2012). 마이크로티칭이 예비보건교육사의 자기효능감 및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1), pp.91-100.
- 김교현(2006). 도박행동의 자기조절모형: 상식모형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pp.243-274.
- 김교현(2007). 중독, 그 미궁을 헤쳐 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pp.677-693.
- 김교현, 권선중, 김세진, 송승훈, 성한기(2004). 도박중독 척도 개발 및 발병률 조사. 대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마사회 연구비 지원.
- 김교현, 성한기(2003). 도박중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도박표준 식별지침 연구. 대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강원랜드 연구비 지원.
- 김보람(2012). 이용 동기와 효능감에 따른 인터넷 게임몰입과 병리적 사용: 자기조절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김석준, 강세현(1996).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제주: 제주대학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 지원.
- 김성재(1996). 알코올리즘의 재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축: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성 알코올리즘 환자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수경(2010).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몰입과 중독에 관한 연구: 자기통제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김영호(2010).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경산.
- 김영훈(2005).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김정연(2005). 병적 도박자의 회복(recover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 노형진(2011). AMOS로 배우는 구조방정식모형. 파주: 학현사.
- 동아닷컴(2011.08.07). 대학생 도박중독 위험 정도 성인의 두배. <http://news.donga.com>.

- 류진아, 김광웅(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청소년상담 연구*, 12(1), pp.65-80.
- 박병일, 김대현, 김민재, 정민혁(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비 지원.
- 박은아(2003).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사행산업 관련 통계*.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2). *사행산업 관련 통계*.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손경애, 고종욱, 이덕로(2003). 인터넷 중독의 결정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산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6), pp.177-207.
- 손덕순, 정선영(2007). 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pp.377-407.
- 양연숙, 권정임(2012). 초등학생의 시험불안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 대처 방식의 상호작용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0(1), pp.79-88.
- 엄태완(2008). 빈곤층 여성의 우울에 대한 연구 : 스트레스, 신체화,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4, pp.61-88.
- 연미영(2006). 청소년의 충동성, 가족도박수준 및 거주지역이 청소년의 도박행동, 도박신념 및 미래의 도박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pp.1-14.
- 영남일보(2012, 8. 24). *사설 - 가볍게 보서는 안될 대학생 도박중독*. <http://yeongnam.com>
- 우형진(2007). 휴대폰 이용자의 자아성향이 휴대폰 중독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2), pp.391-427.
- 윤운성(1998). 자기 효능감의 관련 변인 탐색. *교육연구*, 14, pp.213-238.
- 이국화, 하은혜(2009).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pp.1-18.
- 이명진(2011). 자기조절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39, pp.161-193.
- 이민규, 김교현, 권선중(2007). 인터넷 도박 게임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pp.21-40.
- 이민규, 김교현, 김정남(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pp.399-414.

- 이상주(201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초등교육연구*, 24(2), pp.89-113.
- 이인혜(2005). 카지노 유치지역 주민의 도박참여 및 도박중독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4), pp.67-82.
- 이진국, 조상계, 이동기, 도중진(2008).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수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비 지원.
- 이학식, 임지훈(201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8.0/19.0. 서울: 집현재 출판사.
- 이흥표(2002a). 도박의 심리. 서울: 학지사.
- 이흥표(2002b).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이흥표(2003). 도박동기와 병적 도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pp.169-189.
- 임성범(2004). 알코올중독 환자의 재발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경산.
- 장정연(2011). 청소년 사행성 게임행동에 관한 연구: 선별도구(SOGS - RA) 평가와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정선영(2011). 대학생의 도박행동 구조 모형.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산.
- 정용각(1997). 여가운동 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 각성추구, 정서의 요인이 스포츠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정진선(2009). 가족응집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고등학교의 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용인.
- 조민자(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조절 변인 탐색. *청소년시설환경*, 8(3), pp.29-42.
- 한유진, 최나야(2009).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기조절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pp.171-180.
- Adams, G., Sullivan, A., Horton, K., Menna, R., Guilmette, A. (2007). A study of the differences in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gambling and proximity to a casino. *Journal of Gambling Issues*, 19, pp.9-1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이근후, 강병조, 곽동일, 민성길, 박민철, 박영숙 외 9명 (역). 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서울: 하나의학사.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84, pp.91-215.
- Bandura, A. (1986). *Self-Regulatory Mechanism*.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Blaszczynski, A., Walker, M., Sagris, A., Dickerson, M. (1999). Psychological aspects of gambling behavior: An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Position Paper. *Australian Psychologist*, 34, pp.4-16.
- Blinne-Pike, L., Worthy, S. L., Jonkman, J. N. (2010). Adolescent gambling: A review of an emerging field of researc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7, pp.223-236.
- Encyclopædia Britannica (1977). *The New Encyclopædia Britannica* 7.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 Freeman, N., Muraven, M. (2010). Self-control depletion leads to increased risk taking.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 pp.175-181.
- Griffiths, M. D. (1995). The role of subjective mood states in the maintenance of fruit machine gambling behaviour.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1(2), pp.123-135.
- Griffiths, M. D., Wardle, J., Orford, J., Sproston, K., Erens, B. (2009). Socio-demographic correlates of internet gambling: findings from the 2007 British Gambling Prevalence Survey.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2, pp.199-202.
- Hurt, H., Giannetta, J. M., Brodsky, N. L., Shera, D., Romer, D. (2008). Gambling Initiation in pre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3(1), pp.91-93.
- Jacobs, D. F. (1987). *A General Theory of Addiction: Application to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lanning for Pathological Gamblers*.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 Jöreskog, K. G., Sörbom, D. (1989). *LISREL 7: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 Chicago: SPSS Publications.
- Kennedy, S. H., Welsh, B. R., Fulton, K., Soczynska, J. K., McIntyre, R. S., O'Donovan, C., et al. (2010). Frequency and correlates of gambling problems in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bipolar disorder. *La Revue Canadienne De Psychiatrie*, 55(9), pp.568-576.

- Kernis, M. H., Grannemann, B. D., Mathis, L. C. (1991).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pp.80-84.
- Larry, A. H., Daniel, J. Z. (1976). *Personality Theories*. 이훈구(역). 2001.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 Lee, G. P., Storr, C. L., Ialong, N. S., Martins, S. S. (2011). Compounded effect of early adolescence depressive symptoms and impulsivity on late adolescence gambl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 pp.164-169.
- Liu, T., Maciejewski, P. K., Potenza, M. N.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recreational gambling and substance abuse/dependence: Data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00, pp.164-168.
- May, R. K., Whelan, J. P., Steenbergh, T. A., Meyers, A. W. (2003). The gambling self-efficacy questionnaire: An initial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9(4), pp.339-357.
- Milosevic, A., Ledgerwood, D. M. (2010). The subtyping of pathological gambling: A comprehens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pp.988-998.
- Mischel, W. (1973). Toward a cognitive social learning re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80, pp.252-283.
- Mishra, S., Lalumiere, M. L., Williams, R. J. (2010). Gambling as a form of risk-tak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risk-accepting attitudes, and behavioral preferences for ris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pp.616-621.
- Neal, P., Delfabbro, P., O'Neil, M. (2005). *Problem Gambling and Harm: Towards a National Definition*. University of Adelaide, The South Australian Centre for Economic Studies, Australian Government and the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 Owen, S. V. (1986). *Using self-efficacy in program evaluation*, *Proceedings of th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Pearce, J., Mason, K., Hiscock, R., Day, P. (2008). A national study of neighbourhood access to gambling opportunities and individual gambling behaviour.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2, pp.862-868.
- Sharpe, L., Tarrier, N., Schotte, D., Spence, S. H. (1995). The role of autonomic arousal in problem gambling. *Addiction*, 90, pp.1529-1540.
- Slade, P., McConville, C. (2003). The problem with problem gambling: Historical and economic concern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8, pp.1-16.
- Smith, G. J., Wynne, H. J. (2002). *Measuring Gambling and Problem Gambling in Alberta Using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 Alberta Gaming Research Institute.
- Svetieva, E., Walker, M. (2008). Inconsistency between concept and measurement: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CPGI). *Journal of Gambling Issues*, 22, pp.157-173.
- Zeidner, M., Boekaerts, M., Pintrich, P. (2000). *Self-regulation: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Boekaerts, M., Pintrich, P., Zeidner, M.(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749-768, San Diego: Academic Press.

# **A Study on Gambling Addiction Factors of University/College Students:**

## **Based on Mediating Effect of Gambl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Lim, Seong-Beom**  
(Pohang College)

---

The social welfare intervention method for increasing problems of the gambling addiction had been investigated to analyze the causality among the gambling addiction factors with 286 university/college students in Daegu-Gyeongbuk region.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ly, the emotion factor had produced the direct effect on the gambling motive, and the direct/indirect effect on the self-efficacy and the gambling addiction. Secondly, the home life satisfaction had produced the direct effect on the self-efficacy and the self-regulation, and the indirect effect on the gambling addiction. Thirdly, the gambling accessibility had produced the direct effect on the gambling motivation, and the indirect effect on the self-efficacy and the gambling addiction. Fourthly, the gambling motivation had produced the direct effect on the self-efficacy, and the direct/indirect effect on the gambling addiction. Fifthly, the self-efficacy and the self-regulation had produced the direct effect on the gambling addiction.

---

**Keywords:** Gambling Addiction, Gambling Motivation, Self-Efficacy, Self-Regulation